

10-01

통권 5호



환경-HRI

대한민국 경제 행복 지수

2010년 1월 8일

■ HRI 대한민국 경제적 행복지수

- 제 5회 조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경제적 행복지수의 개요	1
2.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 결과	6
3. 기획 조사 결과	22
4. 경제적 행복지수의 종합적 시사점	28

○ 경제적 행복지수 종합 평가

- 경제적 행복지수가 2회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2007년 하반기 1회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
 - 미래에 대한 경제적 행복 예측도 2009년 상반기대비 큰 폭으로 상승,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본격적으로 표면화된 것으로 보임
 - 경제적 행복지수 구성 요소(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 경제적 불안)의 각 항목별 수치들도 5회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 경제적 불안은 수치가 높을수록 경제적 불안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

○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

- 2009년 12월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강원에 거주하는 대졸 이상 학력의 20대 독신 남성이면서 중위 소득 이상의 공무원으로 추정됨

○ 부문별 경제적 행복지수

- **지역별** : 전국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상승세 속에서 강원(49.1)이 가장 높고 인천(35.7)이 16위로 가장 낮음
 - 지역별 평균 경제적 행복지수가 2009년 상반기 38.6에서 하반기 42.5로 3.6p 상승함
 - 강원과 제주가 1, 2위를 차지한 배경에는 해외 여행 축소로 인한 국내 여행 대체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 경제적 행복 예측의 경우, 울산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체감 경기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 **직업별** : 공무원의 경제적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의 경제 행복감은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
 -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공무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문직의 행복지수가 더 높게 나타남
 - 또한 경제적 행복 예측의 경우,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이 상승하여 전문직의 경제 기대감은 경제 회복이 현실화된 이후에야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됨

- **연령별** : 전 연령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상승하였는데, 20대(49.9)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반면 50대(37.1)는 가장 낮음
 - 상승폭을 살펴보면, 30대가 2009년 상반기 대비 6.3p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경제적 행복 구성요소 중 경제적 불안이 크게 떨어진 것이 주요 원인임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에 있어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나, 60대 이상이 전기대비 상승폭은 37.3p로 가장 큼
- **소득 및 자산별** : 소득의 경우, 8천 만원 이상 자산의 경우, 10~20억 미만의 자산가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음
 - 그러나 소득별 상승폭으로 보면, 4~6천 만원 미만의 경우 행복지수가 2009년 상반기 대비 높아졌으나 6천 만원 이상 소득자는 행복지수가 낮아짐. 이것은 고액 소득자의 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
 - 한편, 자산별로 상승폭을 볼 때, 10~20억원 미만(73.3) 자산가의 2009년 상반기 대비 큰 폭의 증가를 가져옴
- **학력별** : 중졸 이하(32.5) 저학력자의 경제 행복감이 가장 낮고 대학원졸(52.7)의 고학력자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음
 - 그러나 중졸 이하 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상승폭이 낮아짐.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저학력일수록 해당 일자리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
 - 고학력 실업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대학원졸 고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보임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도 전체 학력군에서 모두 크게 높아져 현재 상황이 미래에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음
- **혼인상태별** : 미혼자(48.1)의 경제 행복감이 가장 높았고 이혼자(37.5)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낮았음
 -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가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미혼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단,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의 경우 상승폭이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높게 나타나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기혼자의 경제적 행복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기획조사 결과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부족, 임금소득 감소 및 가계 부채 증가 등이 지속되면서 실물경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체감적으로 경기회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외식비와 레저활동비 등 필수소비 항목이 아닌 지출 부문의 지출 감소가 두드러짐
-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경기 회복은 2011년 이후에나 가능하며 가계의 경제 상황도 호전될 것으로 보는 보수적인 전망이 우세
- 이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3%대의 저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국민들이 약 70%에 이르며, 정부 및 국내 연구기관이 예상하는 4~5%대의 성장을 전망하는 응답자는 3.1%로 그침
- 한편, 2009년 하반기 확산된 신종 인플루엔자는 가계의 소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았지만, 외식, 레저활동 등 대외활동비 부문의 소비 감소를 일으켜 실질소득 감소등과 결합되어 전반적인 내수 경기 부진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임

○ 정책적 시사점

-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2010년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 악화 대책이 필요
- 경기회복 과정에서 자영업자, 고령자, 이혼·사별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의 경제행복감을 제고해야 함

HRI 대한민국 경제적 행복지수 - 제 5회 조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1. 경제적 행복지수의 개요

○ 경제적 행복지수의 정의

- 경제적 행복지수란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경제상태, 의식, 외부 요건 등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정의함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EHI(Economic Happiness Index)로 명명

○ 경제적 행복지수 작성의 목적

- 경제적 행복의 의미를 정의하고, 우리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일정주기별로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함으로써 관련된 경제·사회 정치적 의사결정의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2007년 12월부터 반기별로 조사 발표

○ 경제적 행복지수의 구성 요소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는 ①경제적 안정 ②경제적 우위③경제적 발전 ④경제적 평등 ⑤경제적 불안이며, 각각의 요소를 지수화 한 후, 종합하여 경제적 행복지수를 산출함

< 경제적 행복 구성 요소 >

하위 지수	이론 및 근거	내용
경제적 안정 지수	Maslow(1934) Need theory	어느 일정 수준의 경제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한 다음 단계의 욕구로 진행되지 않음
경제적 우위 지수	Frank Robert(1986)	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수준이 다름
경제적 발전 지수	Daniel Kahneman(1979) Prospect theory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경제적 평등 지수	Veenhoven(2006) Inequality-Adjusted Happiness	개인의 경제적 행복은 소속 집단에서의 경제적 불평등도에 의해 차이를 나타냄
경제적 불안 지수	Okun(1976) Misery Index	물가, 실업률 등 외부 요인이 개인을 불안하게 하는 작용을 함

○ 경제적 행복지수의 계산 방식

- 경제적 행복지수(EHI)는 '5개 하위지수' 와 '전반적 행복감' 의 종합으로 이루어짐
 - 5개 요소 하위지수는 각각 긍정 100점, 중립 50점, 부정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낸 점수임
 - 전반적 행복감은 경제적 행복의 정도를 직접 물어서,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100점, 보통이다 50점,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다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낸

- 경제적 행복지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 중간값 50점임

$$EHI = \frac{\frac{\textcircled{1} + \textcircled{2} + \textcircled{3} + \textcircled{4} + \textcircled{5}}{5} + \textcircled{6}}{2}$$

○ (경제적 행복 예측) 미래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즉 경제적 행복 예측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

- 경제적 행복지수와는 별도로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해 보고자 독립된 별도 문항을 측정하여 지수화 하고자 함
 -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에 대하여 질문하여, ‘그렇다’ 와 ‘아니다’ 의 비율의 차에 100을 더하여, 100 이상이면 경제적 행복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 (BSI 산출방식과 동일)
 - 예로써 ‘예’ 가 60% 이고 ‘아니오’ 가 40% 이면 60 - 40 = 20 에 100을 더하여 120이 지수가 됨
 - 경제적 행복예측은 최소 0점에서 최대 200점, 중간값 100점임

○ 경제적 행복지수의 설문문항

구분		질문	답변
경제적 행복 구성 요소	경제적 안정	나(또는 귀댁의 가장)의 일자리와 소득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내 노후의 경제상황은 안정적일 것 같다.	(1)그렇다 (2)반반이다 (3)아니다
	경제적 우위	나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편이다 최근 6개월간 경제적 열등감으로 마음 상한 경험이 있다.	
	경제적 발전	나의 소득, 자산 등 경제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은 나아지고 있다.	
	경제적 평등	현재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평등해 질 것이다.	
	경제적 불안	내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나를 불안하게 한다. 내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전반적 행복감		나는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경제적 행복 예측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1)예 (2)아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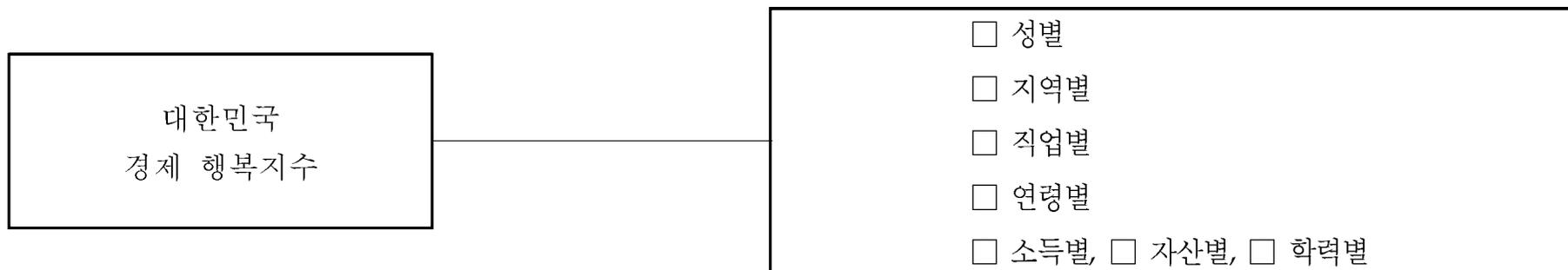
○ 조사의 개요

- 조사 기간 : 2009년 12월 2일 ~ 12월 14일(13일간),
- 조사 주최 : 한국경제신문,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
- 조사 방식 :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에 의하여 전화설문을 통해 전국 1,029개 샘플을 수집
- 조사 대상 : 전국의 20세 이상의 경제활동 중인 성인 남녀 (학생 제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서울	분당/고양*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 이하 분석에서는 분당/고양은 서울에 포함시킴.

○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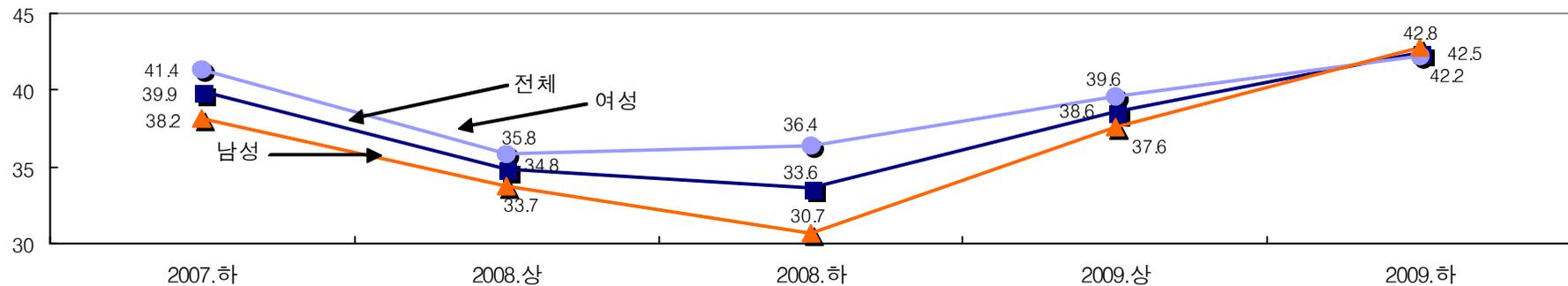


2. 행복지수 조사 결과

○ (종합평가) 경제적 행복지수가 2회 연속 상승세로 2007년 하반기 1회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여 국민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내 경기 침체의 가속화로 경제적 행복지수는 2007년 하반기 39.9에서 2008년 들어 2회 연속 하락하였으나, 2009년 상반기에는 38.6으로 4회 조사보다 5.0p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2009년 하반기에도 3.9p 오른 42.5로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
- 한편, 남녀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행복지수가 상승하였는데, 특히 남성들은 전기대비 5.2p 상승하며 2.6p 상승한 여성들보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 이후 처음으로 남성의 행복지수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 경제적 행복 예측은 2008년 상반기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 각각 상승세를 보였고, 2009년 하반기는 전기대비 15.4p로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미래 경제 사정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

< 경제적 행복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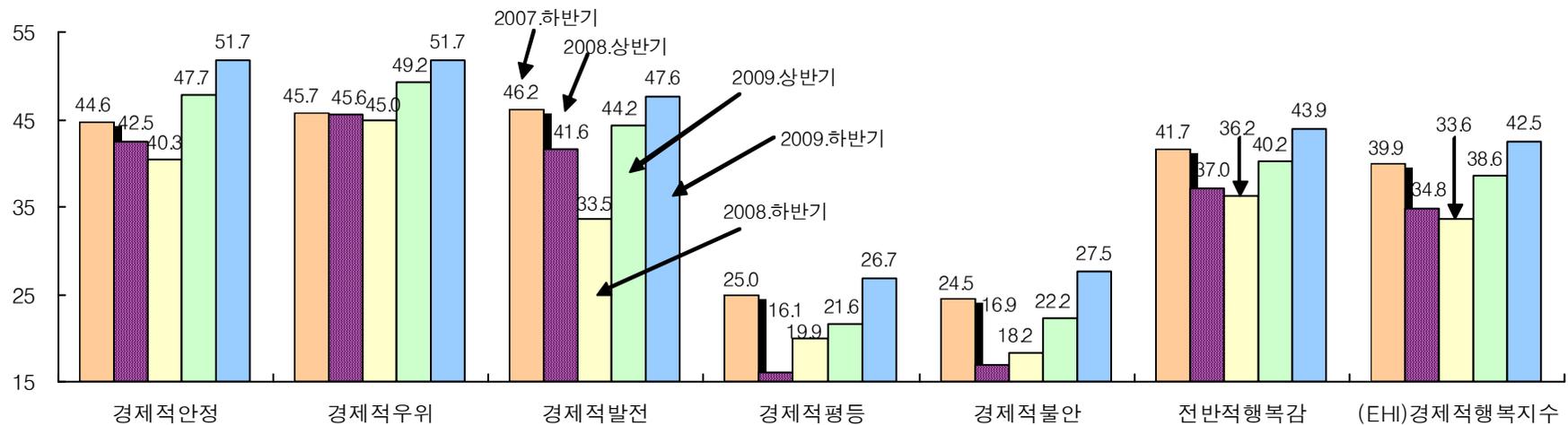


○ (항목별) 경제적 행복지수가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구성 요소의 각 항목별 수치들도 5회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우선, 경제적 행복지수가 4회 조사 보다 3.9p 상승하며 42.5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경제적 안정 4.0p, 경제적 우위 2.5p, 경제적 발전 3.4p, 경제적 평등 5.1p, 전반적 행복감 3.7p도 4회 보다 고른 상승폭을 보이며 경제적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나, 체감물가와 체감실업률을 포함하는 경제적 불안이 5.3p 상승하면서 불안 요인이 해소되어 가는 것으로 보임

* 경제적 불안은 수치가 높을수록 경제적 불안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

< 항목별 경제적 행복 지수 비교 >



- (경제적 행복 예측) 2009년 상반기 전기대비 소폭 상승했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은 2009년 하반기에도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며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미래의 경제적 행복 예측은 전기대비 15.4p 상승한 144.2로 미래에 경제적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긍정적, 낙관적인 기대를 보임)
 - 2009년 상반기 조사에서 경제적 행복지수는 38.6으로 전기대비 5.0p 상승하였고, 미래의 경제적 행복에 대한 예측 역시 3.2p 동반 상승한 128.8을 기록하여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
 - 이어, 2009년 하반기 조사에서도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3.9p 상승한 42.5를 기록하였고, 미래의 경제적 행복에 대한 예측 역시 15.4p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며 144.2를 기록하여 향후 경제적 행복감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상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제적 행복감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최근 플러스 경제 성장과 2010년 5%대의 경제성장 전망 등에 따라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국민들의 희망이 반영
 -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실물 경기 부진으로 2008년 하반기까지 행복지수가 크게 하락하였으나, 향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희망적 기대감을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경제적 행복 예측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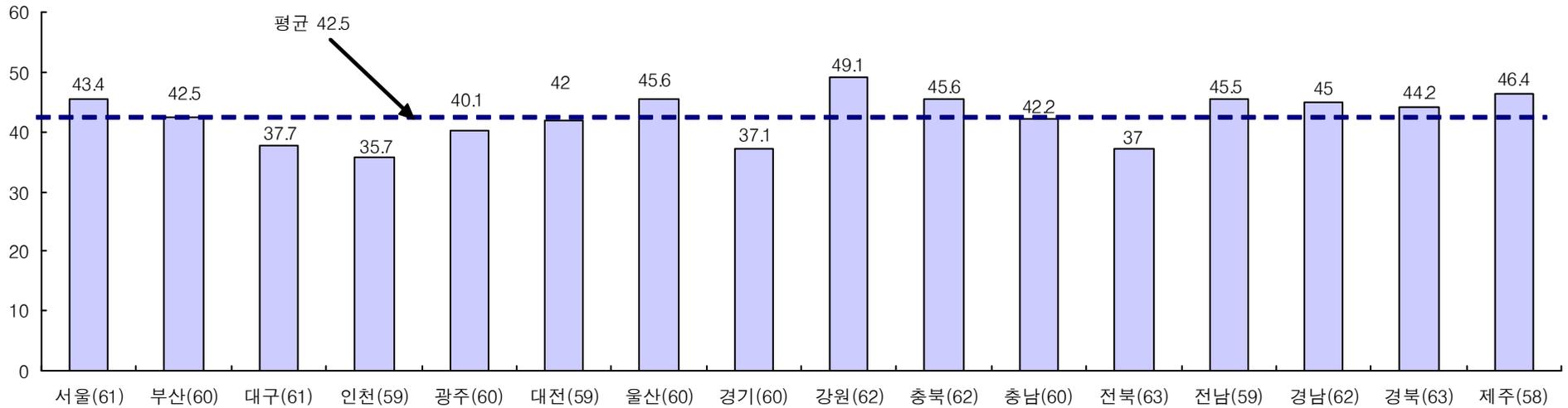
	2007. 하반기	2008. 상반기	2008. 하반기	2009. 상반기	2009.하반기
남 성	135.1	115.0	121.6	127.8	139.8
여 성	137.0	131.1	129.2	129.6	148.2
전 체	136.0	123.1	125.6	128.8	144.2

1) 경제적 행복 예측은 200점 만점으로, 100점을 기준으로 100보다 커질수록 미래의 경제적 행복을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음으로 해석함

- (지역별) 전국 16개 시도별 경제적 행복지수를 살펴보면, 2009년 상반기대비 전반적인 상승세 속에서 강원이 1위(49.1)로 가장 높고, 인천이 16위(35.7)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나타남
 - 지역별 평균 경제적 행복지수가 2009년 상반기 38.6에서 하반기 42.5로 3.6p 상승
 - 그러나,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광역시들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기보다 전반적으로 하락
 - 2009년 상반기 자산가격 상승세 등으로 높아졌던 대도시권의 행복지수는 떨어진 반면, 강원과 제주 등 국내 관광산업이 밀집된 지역의 경제적 행복감이 크게 상승
 - 강원과 제주가 2009년 상반기 각각 13위와 15위에서 1위(49.1)와 2위(46.4)로 상승하였고, 이외에도 울산과 충북의 행복지수가 45.6으로 공동 3위를 기록하며 전기대비 크게 높아짐
 - 반면, 인천이 35.7로 가장 낮은 경제행복지수를 보였고, 경기와 대구는 2009년 상반기 각각 2위와 5위에서 14위(37.1)와 13위(37.7)로 급락하였고, 경제적 행복지수도 지역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나타냄
 - 경제행복지수가 높은 지역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전반적으로 높아져 미래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
 - 울산이 경제적 행복예측 조사에는 162.8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행복지수가 높았던 강원, 제주도 각각 154.8, 151.8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향후 지역 경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대구(141.0), 부산(132.2), 전북(123.8) 등은 미래 경제적 행복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

< 지역별 경제적 행복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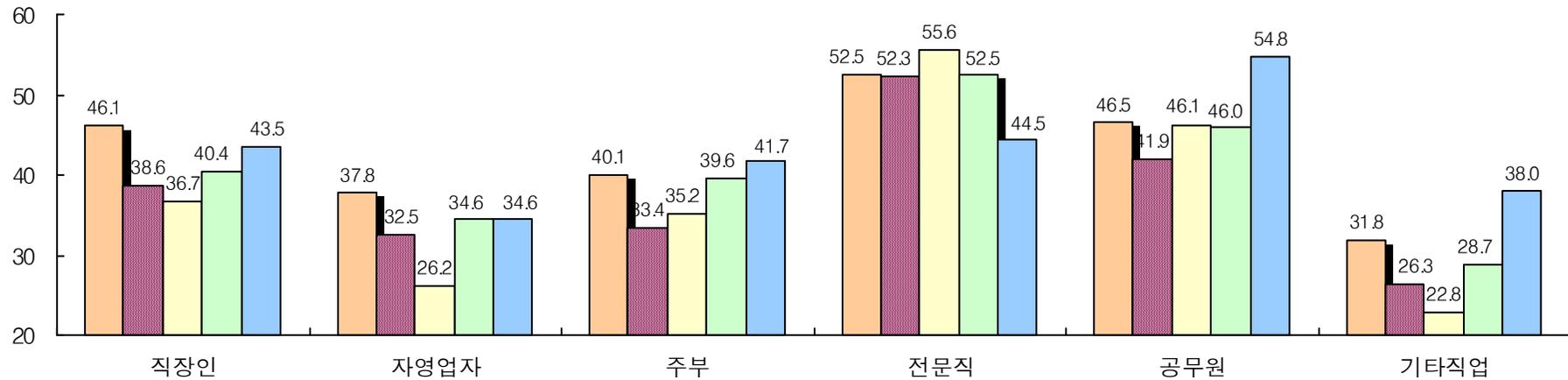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경제적 안정	56.4	52.5	48.4	54.7	47.5	49.6	56.7	47.1	59.4	47.6	55.0	41.3	53.4	49.6	53.6	50.4
경제적 우수	51.1	55.4	47.1	46.2	52.9	51.3	50.4	48.3	60.9	56.0	49.2	42.1	54.2	53.6	50.4	58.6
경제적 발전	49.4	47.9	47.1	42.8	45.3	46.6	52.5	46.7	58.5	50.8	46.3	42.5	48.7	41.1	39.3	54.3
경제적 평등	35.5	30.0	23.8	19.9	19.6	23.7	33.1	20.0	26.2	21.8	22.5	28.2	35.6	29.4	25.0	22.8
경제적 불안	36.9	26.7	24.2	28.0	17.4	23.3	32.5	25.4	29.4	25.4	24.2	21.4	29.7	25.8	35.3	23.7
전반적 행복감	41.0	42.5	36.1	33.1	41.7	46.6	45.0	36.7	52.4	50.8	45.0	38.9	46.6	50.0	47.6	50.9
경제적 행복지수	43.4	42.5	37.7	35.7	40.1	42.0	45.6	37.1	49.1	45.6	42.2	37.0	45.5	45.0	44.2	46.4
지역별 순위	8	9	13	16	12	11	3	14	1	3	10	15	5	5	7	2
경제적 행복 예측	142.1	132.2	141.0	147.4	142.4	144.8	162.8	152.6	154.8	136.6	144.8	123.8	139	159.4	132.2	151.8



- (직업별)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의 경제 행복감은 최저 수준을 유지했고,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직종인 공무원의 행복지수는 전분기대비 8.8p 상승한 반면, 전문직은 8.0p 하락
 -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과 전문직의 경제적 만족도가 타 직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장 경제적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직종은 공무원으로 전기대비로도 8.8p 상승하였으나, 전문직은 8.0p 하락하여 경제적 행복감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도 공무원은 전기대비 11.8p 상승하였으나, 전문직은 10.2p 하락하면서 미래 경제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
 - 경기 회복 기대감에도 자영업자의 경제적 행복은 제자리였으나, 직장인, 주부, 기타/무직 군의 경제적 행복은 상승
 - 자영업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2009년 상반기와 같은 34.6을 기록한 반면, 직장인은 3.1p, 주부는 2.1p 및 기타/무직 군도 11.9p 전기대비 상승하면서 세 직종의 경제 행복감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2010년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면서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은 자영업자가 16.2p, 직장인 1.4p, 주부 24.4p 및 기타/무직 군도 20p가 상승하면서 비교적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것으로 보임

< 직업별 경제적 행복지수 >

	직장인 ²⁾		자영업자		주부		전문직		공무원		기타/무직	
경제적 안정	54.3	2.4	37.1	2.1	49.4	▽1.1	61.4	▽5.3	74.8	4.2	37.3	11.2
경제적 우위	53.4	1.5	44.6	1.0	50.7	0.3	56.8	▽3.2	62.5	2.5	41.8	4.8
경제적 발전	52.5	▽2.0	36.0	▽0.9	41.2	4.1	59.1	7.4	68.3	2.9	26.3	3.7
경제적 평등	26.3	4.9	24.4	8.1	25.8	2.5	22.7	▽0.5	28.4	7.8	38.8	11.4
경제적 불안	26.9	4.9	26.0	7.2	25.1	2.4	29.5	1.2	36.1	8.1	28.0	7.5
전반적 행복감	44.1	3.6	34.9	▽4.3	45.4	2.8	43.2	13.5	55.6	12.6	42.2	11.9
경제적 행복지수	43.5	3.1	34.6	0.0	41.7	2.1	44.5	▽8.0	54.8	8.8	38.0	9.3
경제적 행복 예측	143.6	1.4	139.6	16.2	148.6	24.4	136.4	▽10.2	163.2	11.8	107.2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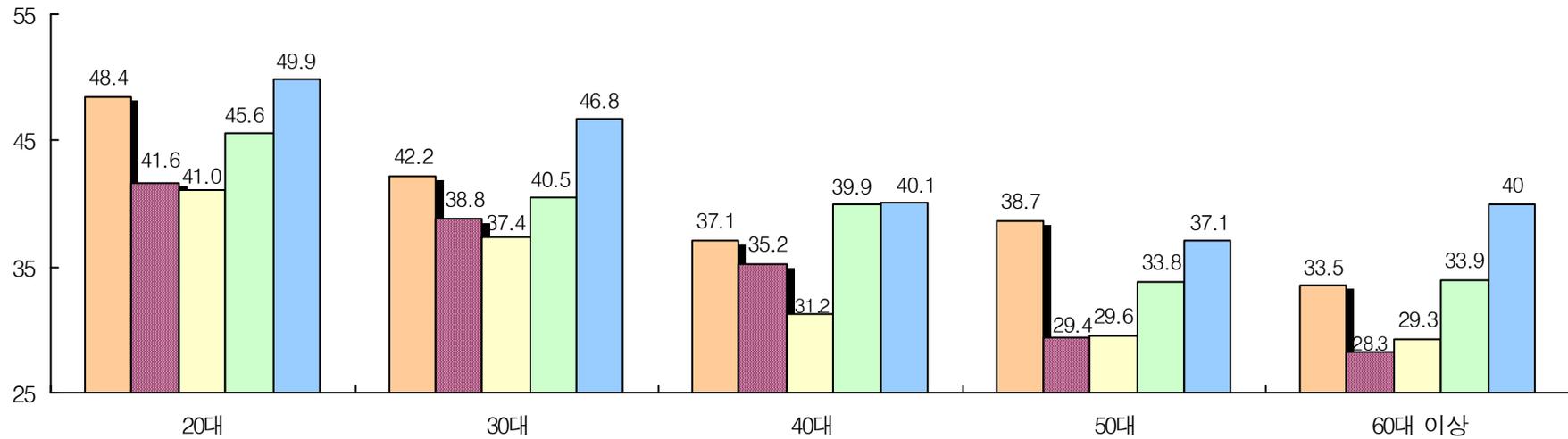
2) 각 항목의 우측 칸은 2009년 상반기 조사와의 격차를 나타냄

○ (연령별) 전 연령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상승하였음

- 연령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경우 전 연령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상승하였는데 특히, 30대와 60대의 상승폭이 각각 6.3p 와 6.1p로 두드러짐
 - 경제적 행복지수는 20대가 49.9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46.8로 뒤를 이음. 40대와 60대에서도 각각 전기대비 0.2p, 6.1p 상승하여 40.1과 40.0을 기록하였으나, 50대는 전기대비 3.3p 상승에도 불구하고 37.1로 가장 낮은 경제적 행복감을 보임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에 있어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나, 60대 이상이 전기대비 상승폭이 가장 컸음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은 20대의 경우 전기대비 16.0p 상승한 166.0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124.8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전기대비로는 37.3p 상승하며 미래의 경제적 행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이외에도, 30, 40, 50대의 경우도 2009년 상반기 조사에 비하여 각각 10.2p, 3.2p, 15.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미래 경제적 행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고, 향후 경기회복에 따라 경제적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연령별 경제적 행복지수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경제적 안정	57.9	5.7	57.4	4.9	51.6	▽1.6	48.1	8.9	37.7	▽1.7
경제적 우위	58.1	▽0.4	55.4	5.4	49.6	▽2.5	47.8	5.9	48.2	2.2
경제적 발전	63.8	▽0.4	58.6	2.1	47.2	0.8	35.1	6.4	27.8	2.6
경제적 평등	27.6	8.3	22.8	4.1	24.6	4.7	27.6	2.8	38.4	11.6
경제적 불안	31.1	4.3	29.9	8.9	27.0	3.1	21.3	2.8	31.4	8.8
전반적 행복감	52.2	5.1	48.5	7.2	40.3	▽0.4	37.7	3.9	44.5	8.4
경제적 행복지수	49.9	4.3	46.8	6.3	40.1	0.2	37.1	3.3	40.0	6.1
경제적 행복 예측	166.0	16.0	157.4	10.2	139.2	3.2	130.4	15.8	124.8	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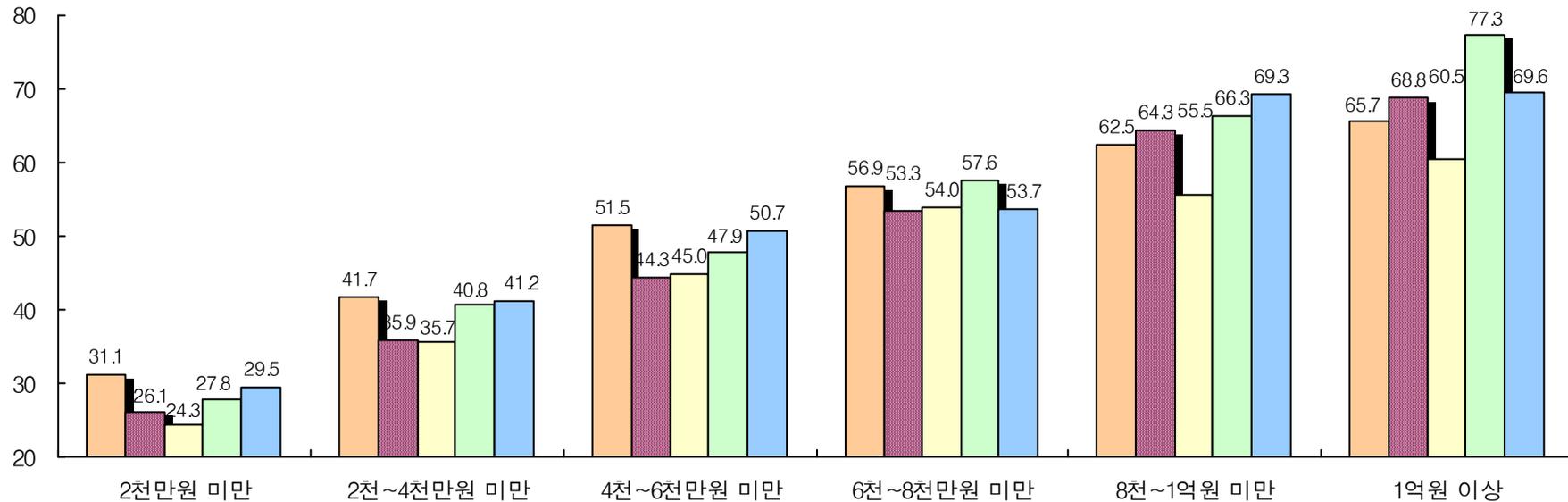


○ (소득 및 자산별) 소득 8천만 원 이상, 자산 10 ~ 20억 미만의 자산가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음

- 소득별로는 8천만 원 이상 소득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으나, 전기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고소득자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하락
 - 6천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상승하였으나, 6천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금융위기 당시 높은 금리와 자산가격 상승의 수혜로 2009년 상반기 지수가 급등하였으나 이후 예금금리 하락과 부동산 및 주식 시장의 안정화로 하락하였음
 - 그러나 경제적 행복 예측의 경우에 중위 소득자들은 전기대비 각각 13.4p, 7.2p, 11.8p 상승하면서 미래 경제를 더욱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상위소득자들은 ▽13.4p, ▽7.6p 하락하며 미래 경제 행복감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별 경제적 행복지수 >

	2천만원 미만		2천~4천만원 미만		4천~6천만원 미만		6천~8천만원 미만		8천~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경제적 안정	29.1	▽0.7	49.6	▽1.3	66.3	▽1.6	73.0	▽6.3	86.9	▽3.1	92.9	▽1.7
경제적 우위	37.0	1.2	49.7	▽1.2	63.6	0.9	64.7	▽9.2	79.8	2.3	89.3	▽5.3
경제적 발전	27.2	▽2.7	46.6	▽3.5	61.3	7.2	63.8	▽4.1	76.2	▽1.3	82.1	12.5
경제적 평등	29.7	7.6	25.7	5.6	24.6	2.4	25.3	3.0	27.4	▽5.1	35.7	8.9
경제적 불안	22.0	4.7	24.2	2.1	32.7	6.2	31.9	▽1.3	53.6	18.6	75.0	16.1
전반적 행복감	29.7	0.9	43.3	0.5	52.1	3.1	55.7	▽4.1	73.8	3.8	64.3	▽21.4
경제적 행복지수	29.5	1.7	41.2	0.4	50.7	2.8	53.7	▽3.9	69.3	▽3.0	69.6	▽7.7
경제적 행복 예측	117.2	13.4	142.6	7.2	167.6	11.8	151.8	▽13.4	152.4	▽7.6	171.4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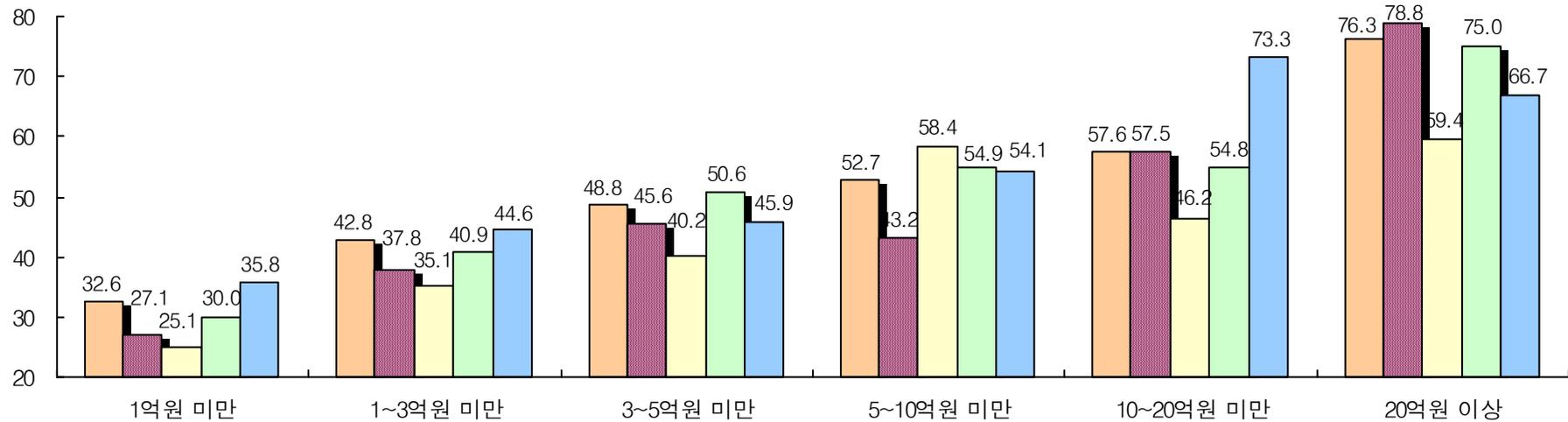


- 자산별로는 10~20억원 미만 자산가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18.5p 상승한 73.3을 기록하여 가장 높게 상승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에 있어서는 1억원 미만의 소액 자산가에서 20.8p 상승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특히 5억원 미만 자산가의 미래 경제에 대한 전망이 가장 낙관적인 자세를 견지하였음
- 그러나, 5억원~10억원 미만의 자산가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은 전기대비 13.0p 급락하였고, 10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높게 나타났지만 전기대비 상승폭은 크지 않았음

< 자산별 경제적 행복지수 >

	1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경제적 안정	42.5	5.2	52.8	3.0	62.9	▽2.1	66.4	▽4.9	86.9	20.2	83.3	▽2.1
경제적 우위	42.3	4.2	54.3	2.2	60.7	▽4.1	68.2	▽4.0	79.8	9.0	75.0	▽10.4
경제적 발전	40.8	3.0	50.3	4.8	51.2	▽3.4	60.7	4.2	67.9	7.5	75.0	12.5
경제적 평등	24.9	3.9	25.7	2.6	29.3	12.2	28.9	▽3.2	35.7	22.2	50.0	25.0
경제적 불안	22.7	4.7	26.0	4.3	34.3	7.2	38.2	3.5	58.3	23.9	50.0	▽4.2
전반적 행복감	36.7	7.2	47.2	3.9	44.7	▽10.9	55.7	▽1.7	81.0	20.6	66.7	▽20.8
경제적 행복지수	35.8	5.8	44.6	3.7	45.9	▽4.7	54.1	▽0.8	73.3	18.5	66.7	▽8.3
경제적 행복 예측	134.2	20.8	149.6	16.4	151.8	7.4	150.0	▽13.0	171.4	4.8	20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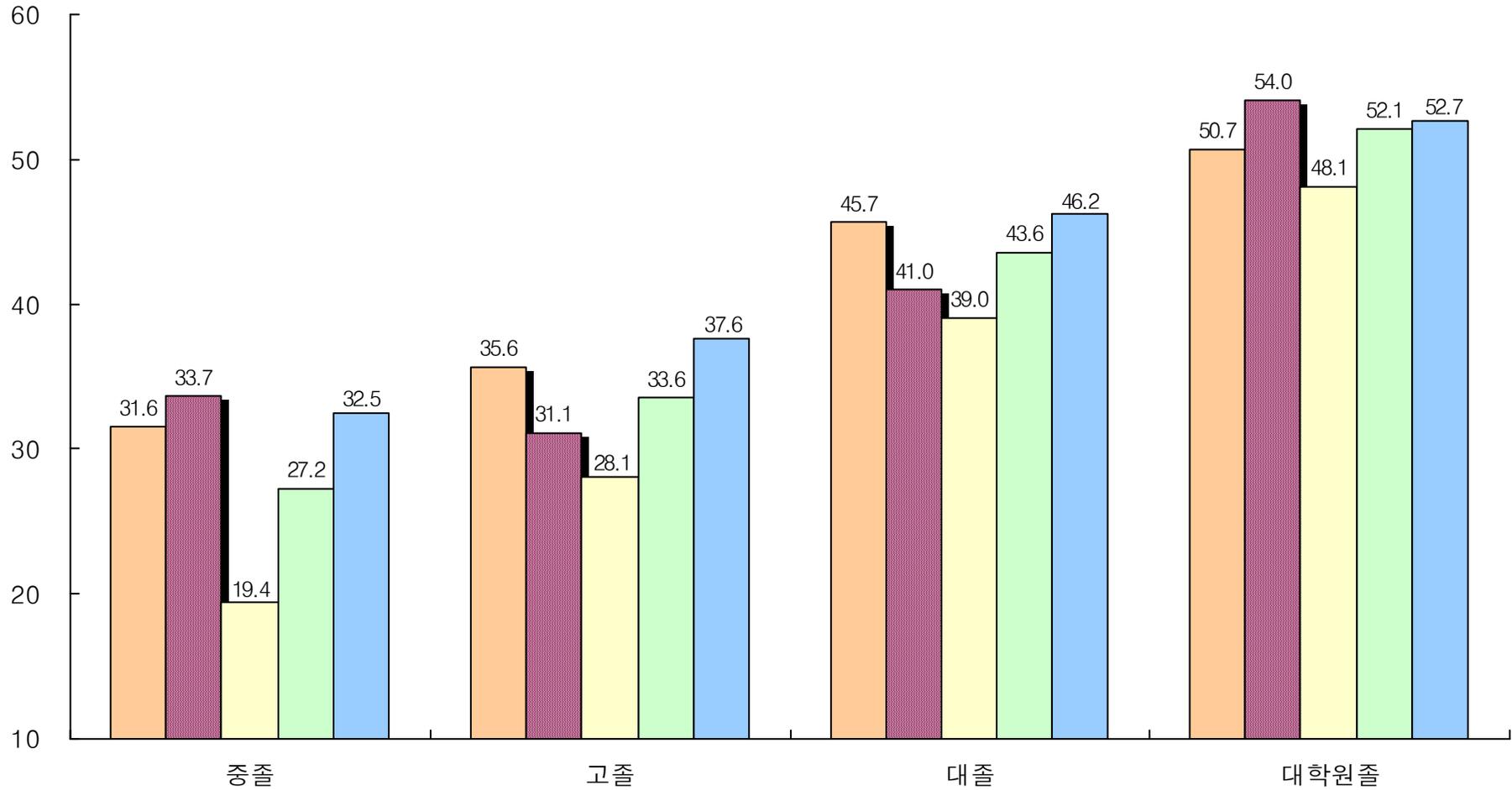


○ (학력별) 취약계층인 중졸 이하 학력자의 경제 행복감은 경기 회복기에도 가장 낮게 나타남

- 중졸 이하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가장 낮지만, 이번 조사에서도 여타 학력 수준에 비해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임
 - 중졸이하 학력의 행복지수가 2회 연속 크게 상승하는 것은 2008년 하반기 전기대비 14.3p 큰 폭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임
 - 이들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도 전기대비 28.8p 상승한 113.6을 보여 현재의 경제 상황이 미래에는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들의 경제적 행복지수도 전기대비 4.0p, 2.6p 및 0.6p 상승하였고,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도 전 학력별로 모두 상승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
 - 최근 신규 취업자 수 감소폭이 둔화되었고, 2010년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으로 신규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각 학력별 경제적 행복지수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학력별 경제적 행복지수 >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경제적 안정	33.8	3.2	43.2	2.7	58.6	3.4	63.3	▽6.3
경제적 우위	36.5	0.7	46.7	4.0	56.3	1.1	63.8	▽5.8
경제적 발전	22.3	1.3	39.5	2.0	56.6	2.7	52.0	▽4.0
경제적 평등	31.1	2.1	27.7	4.4	25.3	7.6	27.1	1.5
경제적 불안	16.7	▽0.4	26.2	6.1	30.0	5.6	31.1	4.9
전반적 행복감	36.9	8.8	38.5	4.2	46.8	1.1	59.2	4.4
경제적 행복지수	32.5	5.3	37.6	4.0	46.2	2.6	52.7	0.6
경제적 행복 예측	113.6	28.8	146.0	19.8	148.6	6.0	149.0	11.0



○ (혼인 상태별) 여전한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부양이나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이 낮은 이혼자나 사별자의 경제적 행복지수 상승폭이 두드러짐

- 경제적 행복지수의 상승폭이 기혼자보다 미혼자, 이혼자, 사별자에서 높게 나타남

· 미혼자나 사별자의 가계 부담이 기혼자보다 상대적으로 낮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의 경우도 미혼자가 16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자, 사별자 순임

* 이혼자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가 2009년 하반기 200으로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2명으로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해석에서 제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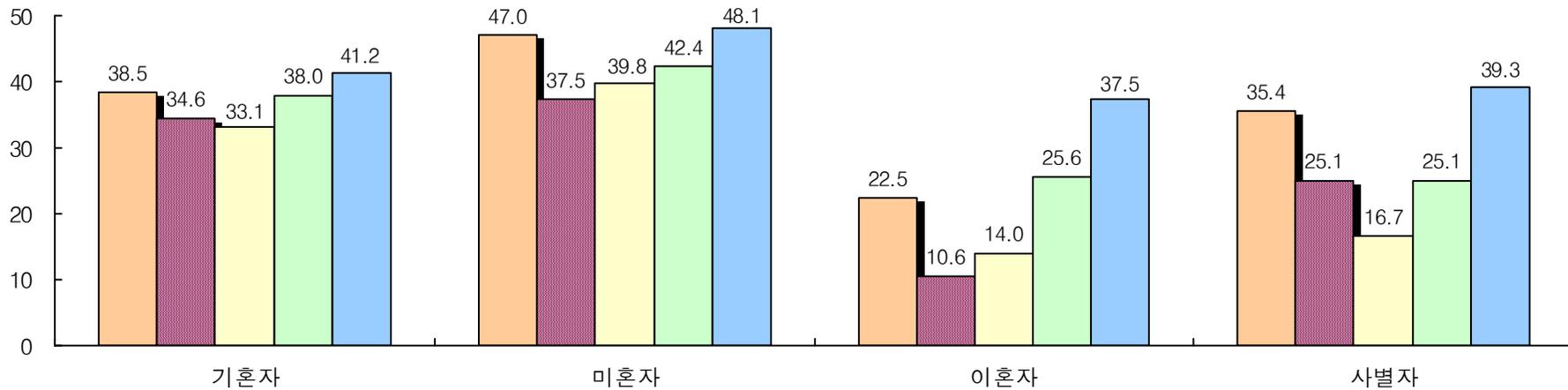
- 이혼자와 사별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각각 전기대비 11.9p와 14.2p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기혼자나 미혼자들에 비해 만족감이 낮아 재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계몽과 재혼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식 변화가 필수적임

· 이혼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11.9p 상승한 37.5, 사별자도 14.2p 상승한 39.3을 기록

· 그러나, 이혼율이 높고, 고령화 사회로 인해 사별자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회 취약계층으로 하락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임. 또한 재혼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통해 재혼율을 높여 출산율 제고에도 노력해야 함

< 혼인상태별 경제적 행복지수 >

	기혼자		미혼자		이혼자		사별자	
경제적 안정	50.9	3.0	56.2	6.4	37.5	12.5	36.4	6.4
경제적 우위	50.6	2.0	57.0	3.9	12.5	▽26.4	40.9	3.4
경제적 발전	44.9	5.4	60.2	▽3.3	12.5	▽15.3	18.2	▽6.8
경제적 평등	26.3	4.3	28.4	8.8	12.5	6.9	27.3	▽5.2
경제적 불안	26.3	4.9	32.6	8.0	50.0	30.6	20.5	▽5.8
전반적 행복감	42.6	2.4	49.0	6.4	50.0	22.2	50.0	30.0
경제적 행복지수	41.2	3.2	48.1	5.7	37.5	11.9	39.3	14.2
경제적 행복 예측	140.2	14.0	160.6	10.4	200.0	155.6	127.2	6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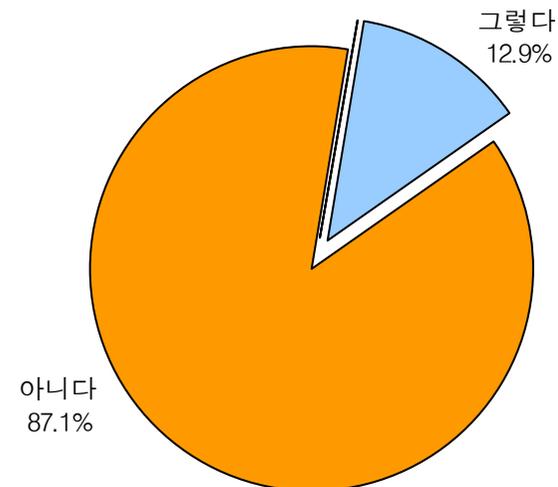


3. 기획 조사 결과

○ 최근 실물경제 지표 개선에도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경기회복을 느끼지 못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제지표상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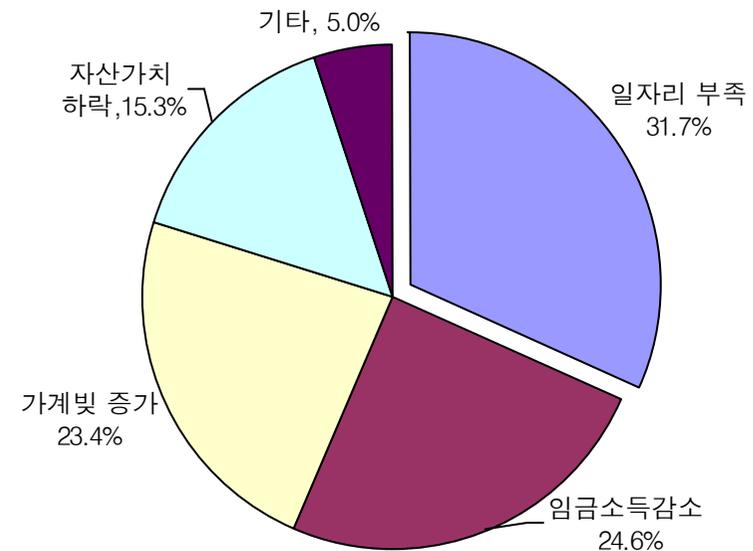
- 전체 1,026명의 응답자 중에서 894명(87.1%)이 최근 국내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함
- 전체 응답자 중 132명(12.9%)만이 실물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09년 플러스 성장 기대감과 사상 최고치의 경상수지 흑자 등 국내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내수 부진과 하반기 자산시장의 상승세 둔화 등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실질적인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 등의 원인으로 체감 경기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임

-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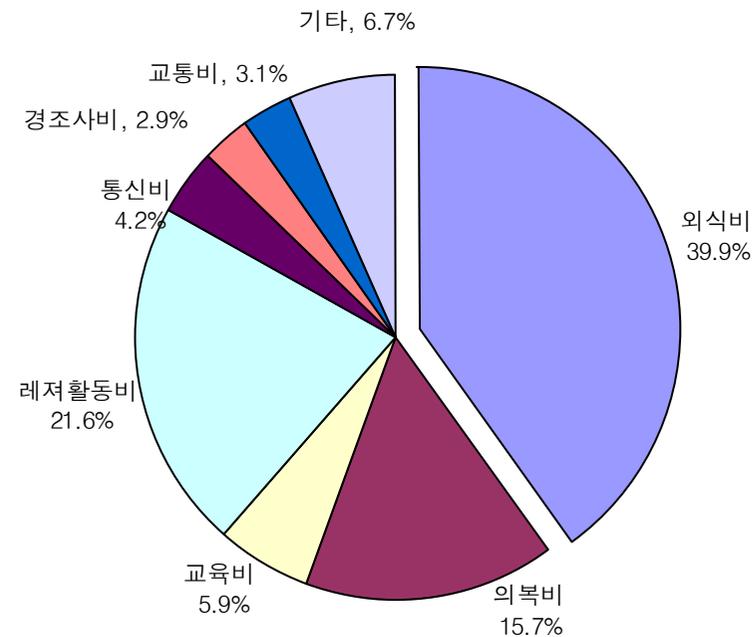
- 전체 887명의 응답자 중에서 281명(31.7%)이 일자리 부족, 218명(24.6%)은 임금소득 감소로 인해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함
- 전체 응답자 중 '가계빚 증가' '자산가치 하락' '기타' 의견이 각각 23.4%, 15.3% 및 5.0%로 조사되어 자산가치는 하락한 반면 가계 빚은 증가된 점이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09년 연간 평균 일자리 감소가 7만 명에 이르고, 여전히 신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며 청년 실업률도 높은 상황에서 가계 빚은 증가하고 임금소득은 감소한 점들이 체감 경기를 낮게 유지하는 원인으로 판단됨



○ 외식비와 레저활동비 등 필수소비 항목이 아닌 지출 부분의 감소가 두드러짐

- 경기 부진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다면 어느 부문입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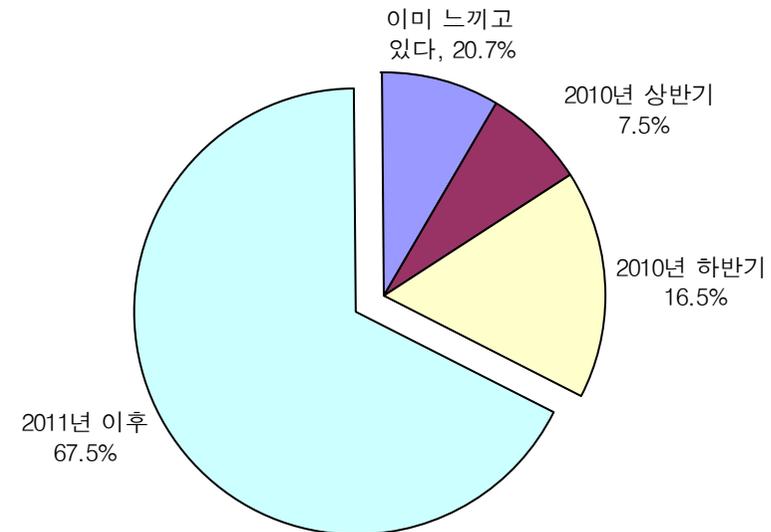
- 전체 975명의 응답자 중에서 389명(39.9%)이 경기 부진으로 외식비를 가장 많이 줄였고, 이어 레저활동비 211명(21.6%) 순으로 지출을 줄였다고 응답함
- 전체 응답자 중 '의복비(15.7%)', '교육비(5.9%)', '통신비(4.2%)', '교통비(3.1%)', '경조사비(2.9%)' 순으로 경기부진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에 따라 지출을 줄인 부문으로 응답함
- 자녀 교육과 통신비, 교통비 및 경조사비 등 꼭 필요한 생활 필수 지출 항목의 지출은 거의 줄이지 않은 반면, 외식비와 레저활동비, 의복비 등 필수 소비지출 항목이 아닌 부문의 지출은 많이 감소하여 전반적인 내수 부진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임



○ 2011년 이후에나 우리나라 경기가 실질적인 회복을 보일 것이라고 보수적인 전망이 우세

- 언제쯤 경제 회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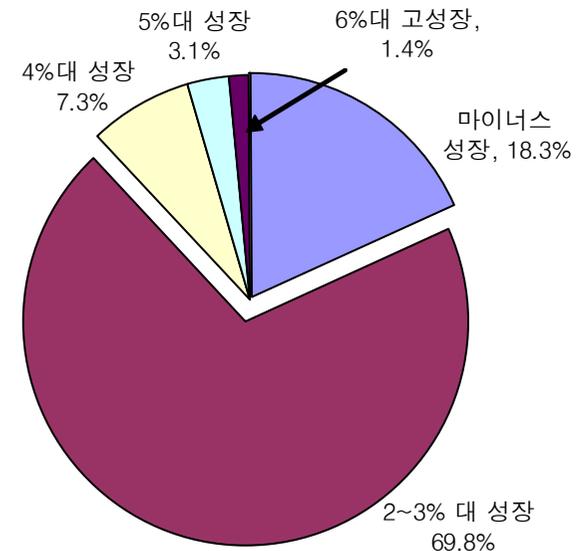
- 전체 1,021명의 응답자 중에서 689명(67.5%)이 2011년 이후에나 우리 경제가 나아져 가계의 경제 상황도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 응답함
- 전체 응답자 중 '이미 느끼고 있다', '2010년 하반기' 및 '2010년 상반기'은 각각 20.7%, 16.5% 및 7.5%로 이들은 늦어도 2010년까지는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대비 한국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과 유럽, 일본 등의 더딘 경기 회복 등으로 본격적인 회복은 201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바라보는 보수적인 시각이 다수임



○ 응답자 중 88% 이상이 내년 우리경제가 3% 이하의 저성장 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10년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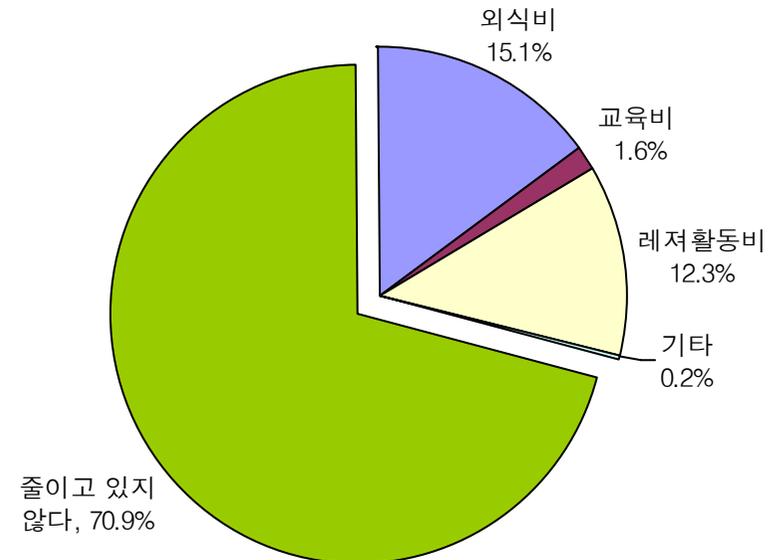
- 전체 998명의 응답자 중에서 697명(69.8%)이 내년 우리 경제가 2~3%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응답했으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자도 183명(18.3%)에 달함
- 전체 응답자 중 '4%대 성장', '5%대 성장' 및 '6%대 고성장'은 각각 7.3%, 3.1% 및 1.4%로 내년 우리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
- 정부가 2010년에도 당분간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5%내외의 경제성장을 전망하였으나, 응답자의 88%가 내년 우리 경제가 3%대 이하의 저성장의 국면에 머물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201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는 보수적인 전망과 의견을 같이하는 결과로 판단됨



○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이 가계의 지출 감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신종 인플루엔자로 어느 부분의 지출을 줄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 전체 1,028명의 응답자 중에서 729명(70.9%)이 신종 인플루엔자로 어떠한 부분의 지출도 줄이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여 높은 위기단계에도 국민 대부분은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전체 응답자 중 '외식비', '레저활동비' 및 '교육비'은 각각 15.1, 12.3% 및 1.6% 감소했다고 응답하여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면하는 활동에 따른 지출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 대외활동(외식, 유아 교육, 레저활동 등)비를 줄였으나, 이는 경기 침체 요인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과 결합되어 전반적인 내수경기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4. 경제적 행복지수의 종합적 시사점

○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 2009년 12월말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강원에 거주하는 대졸 이상 학력의 20대 독신 남성이면서 중위 소득 정도의 공무원이나 전문직으로 추정
 - 이들의 현재 경제적인 행복과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모두 6개월 전에 비해 상승하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
- 한편, 경제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학력이 낮으며 특정 직업이 없고 자산과 소득도 낮은 40~50대 이상의 독신자로 추정됨
 - 취약 계층으로 구분되는 이들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전반적인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짐

○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경제적 행복지수는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2009년 상반기 기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특히 2008년 하반기부터 3회 조사 연속 상승

- 경제적 행복지수가 2회 연속 상승하였고, 2007년 하반기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이는 위기 이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9년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정도로 한국 경제가 주요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안정화 되고 있는 것에 기인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도 정부의 2010년 확장적 정책 기조 유지 등으로 4~5%내외의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표면화되면서 2009년 상반기대비 큰 폭으로 상승
- 체감경기 회복, 일자리 창출, 출구전략에 따른 가계 부담 상승에 대비한 정책적 과제가 필요
 - 최근 실물경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부족, 가계빚 증가 및 임금소득 감소 등으로 가계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이에, 국민의 67.5%가 2011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며, 88% 이상이 내년 우리 경제가 3% 이하의 저성장 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경제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확대 지속과 2010년 본격적인 출구전략으로 인한 금리 상승이 가계부채상환 능력 악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
 - 더불어, 경기회복 과정에서 사회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의 경제행복감 제고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임

□ 총 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작 성 : 조 호 정 선 임 연 구 원 (3669-4047, chjss@hri.co.kr)
 현 석 원 연 구 위 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홍 유 림 전 문 연 구 원 (3669-4018, ylhong@hri.co.kr)